

##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김은일\*

<차례>

1. 서론
2.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
3.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표출되는 양상을 통해 서술자의 지향과 의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위·유씨나 구몽숙 같은 인물들은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모른 체하다가 서사의 말미에서야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때 여성 인물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은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비해, 남성 인물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표현된다. 한편 윤명이나 윤현이는 서사 전반에 걸쳐서 부끄러움을 표현하며 원죄의식을 내면화한다. 그에 비해 윤광천이나 윤희천의 부끄러움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윤명이는 친모나 친부가 아닌 친정 가문 구성원의 잘못을 연좌하여 부끄러운 감정을 가장 심각하고 통렬하게 느끼는 인물로 표현된다.

〈명주보월빙〉의 서술자는 친정의 문제로 인해 부끄러워하기만 했던 다른 소설 속의 여성 인물들과 달리, 윤명이를 통해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둘러싼 갈등을 직접 해소하게 한다. 서술자는 독자들이 윤리적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여성 인물의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것에 비해 남성 인물들의 부끄러움을 섬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명주보월빙〉의 서술자는 당대 소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며, 그 의식성향은 여성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충북대학교 강사

□ 명주보월빙, 부끄러움, 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

## 1. 서론

<명주보월빙>은 낙선재 소설로 총 100권이며, <윤하정삼문취록> 105권, <엄씨효문청행록> 30책으로 이어지는 연작소설의 1부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단일 작품으로 180권에 해당하는 <완월회맹연>에는 못 미칠 수 있으나, 3부작임을 고려한다면 전체 235권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고소설 중에는 가장 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00여 명이 넘는 등장인물들이 혼인으로 이어지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갈등으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으며 마치 이야기 사전 혹은 등장인물 사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20세기 초, 향목동 세책집에서 <명주보월빙>(117책)을 소장했다는 기록<sup>1)</sup>도 남아 있어서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널리 읽혔음을 추측할 수 있고, 그 인기를 가늠할만하다.

<명주보월빙>에 대한 논의는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의 세계관을 분석<sup>2)</sup>한 이후로, 연작소설로의 구조론 및 작품론<sup>3)</sup>이 진행된 바 있다. 이후 등장인물들을 영웅소설의 인물들과 비교한 연구<sup>4)</sup>도 있다. 이상

1) 전상욱, 『향목동 세책의 대출장부에 대한 고찰』,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547쪽.

<완월회맹연>은 향목동 세책집에서 유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비해 <명주보월빙>이나 그 후속편인 <윤하정삼문취록>이 세책집 유통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은 그 대중성을 가늠할만하다고 판단된다.

2) 이상택, 『<명주보월빙>연구-그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131쪽.

이상택, 『<명주보월빙>의 작품세계』, 『정신문화연구』, 1981, 201~212쪽.

3)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173쪽.

4) 박경숙,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인물형상화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의 초기 연구들은 <명주보월빙>의 경계를 제시하고, 작품성을 밝히며 향후 논의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현재 더 나아갈 바 없이 답습상태에 머물러 있고, 등장인물들과 관련한 논의는 영웅소설과 국문장편소설의 선후관계를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소설의 영향으로 등장인물을 구성한 것처럼 분석하고 영웅의 일대기 구성으로 작품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명주보월빙>이 심리묘사가 섬세하다는 점은 공감할만하다. 정밀한 심리묘사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파악하기 수월하도록 한다. <명주보월빙>은 등장인물들의 감정 묘사를 통해 독자들의 감정을 대변하거나 위로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논의들은 대체로 여성 인물들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었는데,<sup>5)</sup> <명주보월빙>의 여성 인물들이 문제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의 경향이 이해된다. 그밖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융합적인 관점에서 <명주보월빙>을 파악하고, 현대적 활용을 제시한 논의<sup>6)</sup>는, <명주보월빙>이 다양한 화소와 다양한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고소설 자료 사전 같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에서 <명주보

---

논문, 1989, 1~70쪽.

- 5)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 반동인물 연구」,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93~126쪽.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202쪽.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2008, 309~342쪽.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범-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2009, 127~178쪽.  
윤현이, 「장르지식을 활용한 장편가문소설의 읽기 전략 연구-<창선감의록>, <소현성록>, <명주보월빙> 읽기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60쪽.
- 6) 김경희, 「고전소설을 활용한 온라인게임의 서사화 방안-<명주보월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58쪽.

월빙>을 다각도로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주보월빙>이 인물들의 심리묘사가 세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명주보월빙>은 대중적인 작품이었으며, 분량면에서나, 서사구성면에서나 부족함이 없으며, 묘사의 디테일함과 같은 소설적 표현기법 측면 역시 뒤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현대의 서사 활용적 측면에서도 유효한 지점이 많은 작품이다. <명주보월빙>이 “가정 내에서 여성들끼리 서로 께어 야 하는 갈등 내지 알력을 서사화하면서 여성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sup>7)</sup>은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흥미 유발지점에 대해 뭉뚱그려진 느낌이 있다. 공감대는 ‘감정’에 기인하는 바인데,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감정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는 진척된 바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정에 주목하여 <명주보월빙>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분류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임은 물론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모든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명주보월빙>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 양상들은 다른 작품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명주보월빙>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보이는 ‘부끄러움’<sup>8)</sup>이라는 감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7) 장시광(2008), 앞의 글, 317쪽.

8) 본고에서 사용하는 ‘부끄러움’은 수치, 수치심, 염치, 면목 없음, 창피함, 수줍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부끄러움과 거의 동일한 단어로 수치(羞恥)를 꼽을 수 있다. 수치는 수(羞)와 치(恥)의 합성어로 전자는 모욕을 당하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후자는 도(道)에 어긋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낫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조태성, 『부끄러움[恥]의 역설, 감성의 동역학』, 『시조학논총』 44, 한국시조학회, 2016, 256쪽.

제니퍼 로빈슨은 “문학이 하는 일은 독자에게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작품에 대한 해석은 그 해석에 앞서는 작품에 대한 감정 반응에 의존한다.”<sup>9)</sup>고 했다. 이때 독자의 감정은 캐릭터를 해석하고, 소설의 줄거리나 주제를 파악하는 중심에 놓여, 작품 해석의 핵심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본고는 이러한 견해를 옹호하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제 속에서 <명주보월빙>이라는 작품 속 세계와 서술자의 지향을 파악하는 도구로 ‘부끄러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명주보월빙>에서 ‘부끄러움’은 서사를 견인하는 주요인물인 윤명아와 윤현아에게 나타나는 지배적인 감정이다. 그 중 특히 윤명아의 부끄러움은 <완월회맹연>의 장성완이나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 혹은 <창란호연록>의 한천희처럼 문체적 친정으로 인해 갖는 원죄의식<sup>11)</sup>과 그로 인해 느끼는 부끄러움과는 다른 결을 보인다.<sup>12)</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주보월빙>의 윤명아를 중심으로 윤명아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갈등구도를 형성하는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끄러움’의 양상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

9) 제니퍼 로빈슨, 조선우 역, 『감정, 이성보다 깊은-감정 그리고 문학·음악·예술에서의 감정의 역할』, 북코리아, 2015, 135쪽.

10) 제니퍼 로빈슨, 조선우 역(2015), 같은 책, 151쪽.

11)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51~53쪽.

12) 장성완이나 이현영의 양상은 오히려 윤현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상술할 것이다.

## 2.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

부끄러움이 ‘인간적’ 혹은 ‘인간성’과 깊이 연루되어 있음은 부끄러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적인 사회의 존립은 도덕성의 문제와 직면해 있는 바,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은 도덕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동양에서는 “수오지심(羞惡之心)”에서 찾을 수 있듯 윤리적 기능을 중요시 했다. 서양에서의 부끄러움 역시 윤리적 기능에서 기인한다.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은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운 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다.<sup>13)</sup>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서 부끄러움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끄러움은 윤리 혹은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로 인해 타인의 시선을 인식할 때 발생하며,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는 ‘악’,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선’으로 인식된다. 이때 윤리적 기준은 당대적·문화적 기준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시대와 향유하는 문화 속에서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악행으로 규정되고, 그에 따라 악행을 인식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대개의 악인형 인물로 규정되는 사람들의 경우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반면 선인형 인물들은 ‘악행’으로 규정되는 문제적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13)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세기 2장 25절) /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창세기 3장 7절) /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부끄러움이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은 윤리적 기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당대에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끄러움의 양상은 감정이 발생하는 동인에 따라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sup>14)</sup> 하나는 시선을 받는 주체가 직접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적 태도에서 발생하는 부끄러움이다. 이를 ‘본인의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부끄러움’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본인의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부끄러움은 주로 악인형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들에게 부끄러움은 주요한 감정이 아니다. 악행이 지속되는 경우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각자의 욕망에만 주목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틈이 없다.

다른 하나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둘러싼 환경이나 본인이 바라본 타인의 악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끄러움이다. 이를 ‘타인의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부끄러움’으로 명명할 수 있다. 주로 선인형 인물로 규정된 사람들 혹은 윤리적 기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인물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이 이에 해당한다.

---

14) 단, 이 두 유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연씨’와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이는 우부형(愚婦型)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 2018년 11월 3일에 진행된 전국고전문학자대회에서 이 유형의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우부형 인물은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도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인물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가문 혹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당대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물도 아니며,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도 아니다. 그들은 무지(無知)함으로 인해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끄러움도 느낄 줄 모른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타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따라서 연씨는 두 양상을 모두 지닌 인물로서 파악 가능하다. 김동욱, 『한글장편소설의 ‘우부형(愚婦型) 인물’ 통해 살펴본 정의의 문제』, 『2018 전국고전문학자대회 발표자료집』, 2018, 300~314쪽.

## 1) 본인의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부끄러움

<명주보월빙>의 주요 갈등을 형성하는 두 축은 윤명아 남매와 그들의 조모와 숙모이다. 윤현이 조사(早死)하고, 윤수를 중심으로 가문의 권력을 재배치하고 싶었던 위씨와 유씨는 윤현의 소생들을 탄압한다.<sup>15)</sup>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윤현아와도 지속적으로 갈등한다.

한편 문양공주<sup>16)</sup>가 윤명아를 포함한 정천홍의 다른 아내들을 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위·유씨와의 갈등과, 문양공주와의 갈등은 축이 다르지만, 위·유씨와 문양공주가 ‘신묘랑’이라는 범사를 공유하면서, 두 갈등이 결합된다. 갈등이 봉합되기 전까지 위·유씨나 문양공주와 같은 인물들은 타인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의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

부끄러움은 그들이 느끼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된다. 다만 서사의 결말에 가서야 그들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본인들의 행동이 문제적이었음을 인식하고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된다. 윤명아가 친정으로 귀령 온 틈에, 위·유씨가 윤명아를 죽이는 장면에서 윤명아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에 행하지만 하늘이 보고 신이 알고 있다’면서 “스스로 두렵지 아니니잇가”라고 묻는다.<sup>17)</sup> 스스로 두렵지 않냐는 질문은 달리 말하면, 하늘에 부끄럽지 않냐는 말로 치

15) 윤현과 윤수의 아버지인 윤노공은 황씨와 위씨 두 아내를 두었다. 윤현은 황씨의 소생이고, 윤수는 위씨의 소생이다. 윤현은 조씨와 혼인을 하여 윤명아, 윤광천·윤희천(쌍둥이)을 낳고, 윤수는 유씨와 혼인하여 윤경아, 윤현아를 낳았다. 윤수에게는 아들이 없는지라 윤희천을 윤수의 양자로 삼는다.

16) 정천홍의 다섯 번째 부인으로, 정천홍의 모든 아내들을 제거하고 정천홍의 사랑을 독점하려 한다.

17) 흥괴 조부인을 모라 협실의 너호니 소제 쫓와 들너하니 경이 나느시 문을 잠고 위뉴 낭인이 세월 비영 등으로 하여금 소저기 다라드러 저저 누이고 경이 뉴리종의 약을 드러 소저 입의 브으려 하니 (생략) 이런 약스를 힘흐나 아턴이 도림히고 신명이 직방하니 스스로 두렵지 아니니잇가 『명주보월빙』, 10권.

환되며, 이는 곧 ‘하늘’로 표현되는 윤리적 기준-타자들의 시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위·유씨는 이러한 윤명아의 말에 분노하여 윤명이를 죽인다. 이때 윤명이는 임신 중이기도 했다. 이처럼 서술자는 위·유씨를 임신 중인 손녀와 조카를 때려죽일 정도로 도덕의식이 낮고 욕망만 강한, 치(恥)가 없는 인물들로 표현한다.

부끄러움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 바, 작가가 등장인물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물로 표현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 천자는 문양공주의 아버지로 딸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딸의 인물됨 자체는 낮게 평가한다. 천자가 문양공주를 빗대어 연군주를 ‘염치상진(廉恥喪盡)한 인물이 또 있다’<sup>18)</sup>고 평가하는 것은 문양공주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술자는 독자로 하여금 천자의 눈을 통해 문양공주를 판단하도록 한다.

물론 이들이라고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상술했다시피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건이 서사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그들의 문제적 행동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인물들은 부끄러움을 거짓으로 무마한다. 그리고 이후에 더욱더 악독한 행동을 하며 갈등을 심화한다. 예를 들어 윤현아가 그 친모인 유씨의 행실에 대해 간절하게 직언을 하자, 유씨는 잠시 부끄러움을 느낀다.<sup>19)</sup> 그러나 곧 상황 모면

---

18) 상이 (생략) 문양공주의 횡스를 보아 계신디라 그런 염치 상던 혼 인물이 쯔 이시물 괴이히 녀이시나 『명주보월빙』, 53권.

이 때 문양공주와 함께 염치없는 인물로 표현된 연군주의 경우는 물색없고 눈치 없는 경우로 욕망에 휩싸인 위·유, 문양의 무리와는 다른 인물이다.

19) 뉴시 비록 쫄의 말이나 그 약스를 니르미 당혀는 참괴혀 모녀의 뜻이 다르물 이 들와 혀나 일코 슬혀혀던 바로 뼈 쑤짓지 못혀고 출하리 뉘웃는드시 혀여 그 므음을 늑이고져 혀여 『명주보월빙』, 9권.

을 위해 거짓으로 딸을 안심시킨다. 그리고 수치는 곧 분노로 전환된다.

문양공주가 정천홍과 동침하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에서도 일시적 부끄러움이 또 다른 악행의 발생과 심화된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양공주는 잠든 척 하는 정천홍을 몰래 훑쳐보다가 발에 차인다. 그러나 차였다는 사실만이 부끄러워 최상궁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정천홍에 대해 분노하고, 그 화살을 정천홍의 다른 아내들에게 돌린다. 문양공주의 부끄러움은 그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부끄러움 일 뿐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만 깊어질 뿐이다.<sup>20)</sup>

이들의 부끄러움은 서사의 말미에 가서나 나타난다. 악인형 인물들은 주요 갈등이 봉합된 후, 자신의 죄를 온전히 반성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부끄러워한다.

- (ㄱ) 어시의 윤공이 이디년디하여 두긋거오를 니기디 못히고 태부인은 쥬견 업는 사름 굿터여 낭손 부부를 굿터여 피위험도 업고 스랑하는 경도 칙 나디 아니나 본품의 악악 흉독함을 바려실디언정 오히려 극단히 어딘 곳 의 나아가디 못하여 창후 형테와 덩당 등의 특이함을 아릅다이 녀이디 쏘 싱각한 즉 저저시 황시의 소싱이오 내 골육이 아니니 이계 조모를 므어시 관동하여 이덕도록 디성으로 밧드러 효성이 이긋터니 아디 못히리로다 의 식 이의 밧쳐는 몸을 아모리 가딜줄 몰나 녀술 일코 두 눈을 구을니고 흥 홀홀 말도 주러 저시니 창후 등의 디성으로 구호하는 성효를 넘어 악덜과 폐팅하였던 낭안이 다 식훤이 썩여시를 대희하여 만히 감동흔 비라<sup>21)</sup>
- (ㄴ) 뉴시는 뉘웃봄과 참괴흔 거술 긴 날의 어이 견디리오 하여 울기를 마디 아니터니 이윅고 곳친 후 좌슈로 소스를 집슈하고 우슈로 창후의 손을 잡

20) 공쥬 최상궁 다려도 바로 니르기 참괴하여 다만 니르디 도위 스금이 버셔졌거늘 쥬혀 덥고져하여 알페 나아가리 무심결의 마이 츠 바리니 하마 죽을번하여시나 사름을 이리 상케하고 밧음이 안안하여 저려툷 즈는 줄 이상하도다 『명주보월빙』, 24권.

21) 『명주보월빙』, 73권.

아 탄성 테읍왈 나의 전전과약을 금일혜건디 텃디의 빗홀 곳이 업는디라  
현딜과 희이 데순과 증슴의 대효를 범바다 비록 원한을 품디 아니하나 내  
므음의 참괴흐미 낫돌 쓰히 업스니 출하리 죽기를 바라나 귀신늑의도 참  
예치 못하여 옥등 죄쉬되리니 츠신이 싱스간 므어시되엿노뇨 창후 형테  
부인의 쾌히 씨드르물 보미 깃브미 이 밧괴 업는디라 혼연 고왈 왕스논  
믈이 업침 곶고 전혀 지하즈의 블초흐미니 츠정의 므슴실덕이 되시리잇고  
뉴시 몽스를 대강니르고 쇼스의 손과 팔히 상흐미 몽등의 불적과 다르디  
아니믈 곶초 닐너 슬허흠과 누웃는 말이 혜달홀 듯 호고 전전약스를 스스  
로 일크라 붓그리믈 형상치 못흐미니<sup>22)</sup>

(ㄱ) 태부인이 탄왈 석년의 뉴시 실성하여 노모와 형계하던 변괴 흥참극악  
하더니 당시하여 김히 슈졸하여 둥인 공회의 나기를 참괴하여 홀 썬 아니  
라 오익 죽이디 못흐를 한흐니 침소의 두문불출하여 스쳐 죄인하니 노피  
더욱 불평하도다<sup>23)</sup>

(ㄱ)은 위씨의, (ㄴ)은 유씨의 개과천선 후 모습이며, (ㄷ)은 유씨가 개  
과천선 한 후 서사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는 원인을 서술한 장면이다. 서  
사의 말미에 나타난 이들의 부끄러움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이 인물들  
의 행동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는 남성 반동인물인 구  
몽숙이 지난 일을 반성하고, 용서받아 승승장구하는 것과 비교된다.<sup>24)</sup> 윤  
명아와 유·위·문양공주의 갈등이 봉합된 73권 이후는 등장인물의 세대교

22) 『명주보월빙』, 73권.

23) 『명주보월빙』, 73권.

24) 신은 몽숙으로 스스험원이 이시디 그 개과흐를 아름답이 녀어웁스니 (생략) 바라건  
디 몽숙을 담양태슈를 호이소셔 (생략) 몽숙이 소취 덕겨 튥군을 심세의 면치 못홀가  
슬허하더니 천만 의외 샴명이 니르고 (생략) 니민이 태슈의 덕화를 칭송하니 몽숙이  
어던 사름되웁과 살 쓰홀 드디미 전혀 제왕의 공이러라 『명주보월빙』, 91권.  
입의 은영이 더오미 몽숙이 슈윳디니 상경하여 꺾하의 샴은숙비호고 바로 덩부의 와  
금후 부즈를 보고 눈물을 흘니며 고두샤례하니 『명주보월빙』, 96권.

체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서술이 줄어들는다. 예를 들어 위씨와 조씨와 한 목소리를 내거나<sup>25)</sup> 유씨와 문양공주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어지는 등, 그 비중이 줄어든다.<sup>26)</sup> 이는 위씨의 서사의 종말에 해당하는 위씨의 생일잔치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위씨는 본인의 생일날, 기쁨보다는 부끄러움에 기반한 탄식과 슬픈 회포를 언급한다.<sup>27)</sup>

이처럼 본인의 문제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인물들의 경우에는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부끄러운

25) 윤광천이 평진왕 올금서를 토벌하러 가는 길에 가족들과 인사를 하는데 유씨는 나오지 않고, 위씨와 조씨가 한 목소리로 처리되며, 윤광천 역시 친모인 조부인 걱정을 한다는 서술만 나온다.

원췌 옥누항 본부의 도라와 존당과 숙당과 모친기 출덩흐를 고흐니 위태부인과 조부인이 경왕 병기는 흥디라 네 엇디 몸이 위위티흐를 넘너치 아니코 원노의 출덩코져 흥노요 『명주보월빙』, 96권.

26) 유씨는 개과천선 한 후로 특히 그 비중이 약화된다. 서사의 끝을 알리는 위씨의 생일잔치에서도 유씨에 대한 서술은 지극히 객관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뉴부인이 네복을 궤초아 옥슈의 뉴리비를 밧드러 나아와 헐헐미 옥티화달이 몬져 슈출흥디라 태부인이 년이 왈 현부는 노모의 소익지라 개과천선헐 덕이 쑤다오니 노피더욱 깃거호노라 뉴부인이 빅샤이퇴헐미 츠레 단왕의 밧쳐 『명주보월빙』, 100권.

27) 아들 윤수의 잔을 받은 후 : 금일 연석을 당하여 현부의 잔을 바드니 아심이 비여철 비여석이라 빅으의 흥가디로 즐기디 못헐미 엇디 슬쁘디 아니리오 흥믈며 석년 노모의 여산과악을 헤아리미 고당화루의 부귀를 안향헐미 망외라 현부와 광으 등이 풍상 곤익의 몸이 보전하여 토목 궤튼 노모를 감화헐미 텃의 도으미라 노피 만일 현부와 광턴 등의 디회 아니면 여츌 영광 부귀를 당헐리오

며느리 조씨의 잔을 받은 후 : 노모의 석년 포악이 너의 대효를 힘넘어 금일 연석을 당헐니 석식라도 무한이라 일죽 은선군의 보디 못헐시를 비통헐고 쑤 여형을 싱각헐미 각골통석헐니라 너의 그림지 처량흐를 더욱 슬허호노라

손자 광천의 잔을 받은 후 : 석년 노모의 조현부와 여등부부를 참혹히 보치던 빅 회장하급이리오 만일 텃의 도으미 아니런들 엇디 이런 영복을 보리오

손자 희천의 잔을 받은 후 : 석일 노모의 과악을 싱각헐미 엇디 츠악디 아니리오마는 여등이 노모의 형악을 원치 아니코 성회 가디록 더오니 엇디 아뵤답디 아니리오 금일 경사를 당하여 고스를 추상헐미 비회를 금억디 못하여 도로혀 너히 회고를 상헐오니 스스의 노모의 박덕불인을 니기여 니르라

감정보다는 분노와 같은 개인적 감정을 우선시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라도 자신의 문제적 행동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 내며 결국은 갈등의 심화를 야기한다. 이들이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서사가 끝날 때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유형의 인물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서의 행보이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온전히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여성 인물에 대해서는 서사 결미에서 표출하지 않거나 과거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계속 진술하게 한다. 그에 비해 남성 악인이었던 구몽숙의 경우 태수가 되어 이민(吏民)의 칭송을 받고, 끝내는 상경하여 승승장구하는 일종의 ‘보상’을 받게 된다. 물론 이는 구몽숙을 통해 정천홍의 인물됨과 재주를 강조하는 효과를 위한 장치로 볼 수도 있다.

비록 반동인물이 아니지만, 하원광의 경우에도 아내인 윤현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던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지인지감이 없었음을 일시적으로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이내 장모 유씨의 과약 때문에 여전히 윤현아에게 분노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등 단편적으로 처리될 뿐이다. 따라서 본인의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부끄러움의 경우, 남성 인물들에게는 윤리적 기준이 관대하고, 여성 인물들에게는 윤리적 기준이 강요되는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2) 타인의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부끄러움

<명주보월빙>은 윤, 정, 하 세 가문의 혼사를 둘러싼 이야기이지만, 주요 갈등이 윤씨 집안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윤씨 집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윤씨 집안을 정상화 시키는 것에 서사의 축이 크게 기울어 있다. <명주보월빙>의 주요 세 가문은 각 가문별 주요 갈등을 하나씩 갖고 있

게 되는데, 윤씨 가문의 경우 위·유씨의 꺾박으로 인한 조손 갈등-모자(모녀) 갈등, 정씨 가문의 경우 문양공주의 질투로 인한 처처 갈등, 하씨 가문의 경우 하원광과 윤현아의 부부 갈등이 주요 갈등 축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이 중에서도 윤씨 집안의 갈등은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돌만하다. 우선 윤씨 가문의 위·유씨와, 정씨 가문의 문양공주가 신묘량이라는 범사를 공유하면서 윤씨 가문의 갈등은 정씨 가문의 갈등과 얽히게 된다. 이들 갈등의 해소는 신묘량의 제거에 있는데, 신묘량을 제거하게 되면 정씨 가문의 문제와 윤씨 가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서도 그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다.

윤현아-하원광, 하영주-윤희천으로 설정된 겹사돈이라는 틀과, 윤현아를 다른 집으로 시집보내고자 하는 유씨(윤현아의 친모)의 농간은 윤씨 가문의 갈등이 하씨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빌미가 된다. 따라서 윤씨 가문의 위씨와 유씨의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가문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명주보월빙> 서사의 도달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문제적 가문인 윤씨 가문의 자손들은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조모, 계조모, 숙모, 친모 등으로 표현되는-들의 잘못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윤명아, 윤광천, 윤희천, 윤현아가 그 주요 인물들인데 특히 윤명아에게서 부끄러움이 절박하게 나타나면서 윤명아가 <명주보월빙> 서사를 견인하도록 한다. 윤명아가 신묘량을 잡아 관에 고발함으로써 모든 갈등이 봉합되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은 윤명아와 윤현아의 내적 갈등 및 외부적 조건에서의 고난

28) 물론 이 속에 부차적으로 정씨 가문에서 벌어지는 다른 자손들의 부부 갈등이나, 하씨 가문을 몰락의 위기까지 몰아갔던 정쟁 갈등 등도 다루어지고 있으나 주요 자손들과 그 자손들을 중심으로 한 중심 갈등은 이와 같이 꼽을 수 있다.

을 드러내는 감정으로, 윤명아와 윤현아 감정 중에서 대표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윤명아와 윤현아는 시집가기 전 친정에서 구박받고, 혼사를 망치려는 부모와의 갈등을 겪는다. 나아가 시집 간 후 친정을 벗어나도 윤명아는 문양공주와의 처첩갈등 때문에, 윤현아는 하원광과의 부부갈등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명아와 윤현아를 괴롭게 하는 것은 친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친정의 문제 때문에 처첩갈등이 더 치열해지거나 부부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위씨와 유씨의 행동은 가문 내적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남성 인물들이 자신 집안(본가)의 문제를 아내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sup>29)</sup>과 달리, 여성 인물들은 자신 집안(친정)의 문제를 남편 및 시댁 식구들에 부끄러워하면서 죄인을 자처한다.

목연이 말이 엷다가 쏘 다시 싱각ㅎ디 내 임의 저의 익미 ㅎ를 불히 알거  
늘 도격의 흥언으로써 통완흔 뜻을 두어 저를 밋물이 디접하면 군즈의 덕이  
아니오 어딘 녀즈의 평성을 저바리미라 (생략) “싱이 비록 불명ㅎ나 즈의  
고절청형을 모로지 아니ㅎ느니 소저는 부운긋튼 누언을 ㅁ음의 머므르디 마  
르소서 싱이 일분이나 고지듯는가 녀너치 마르소서 싱이 슈무식이나 엷지  
빅세낭필을 지긋치 못ㅎ리오 (정천홍)<sup>30)</sup>

소제 전일 절노 더브러 언어를 문답ㅎ엿고 도격의 흥언을 밋디 아나 즈긋  
를 위로ㅎ는 말이 이긋트니 엷지 감사ㅎ 뜻인들 엷스리오마는 즈긋를 이싱  
히 ㅎㅎ느지 남이 아니라 이 불과 조손 슈딜 스이로 조츠 대변을 지어시를  
집작ㅎ디 망극ㅎ참ㅎ미 경긋의 죽어 조모의 과악을 곱초고저 뜻이 이시나

29) 윤광천과 윤희천은 집안의 문제가 국가적으로 발설됨에 따른 부끄러움은 있지만, 아내인 정혜주에 대해서나 하영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명아가 위·유씨의 문제를 처음으로 부끄러워한 대상은 남편이었고, 시댁이었다. 윤명아가 낮을 들 수 없는 주체로 하늘이나 세상보다는 시댁이 더 비중 있게 표현되고 있다.

30) 『명주보월빙』, 7권.

모친이 죽기 남피로 위회하여 남달니 괴롭고 설운 경계를 춤고 견디시는 바  
를 생각하면 죽기 슈화라도 살기를 도모하는 거 올흔지라 천스만네 육장을  
녹이니 말이 나지 아냐 저두브더러니(운명아)<sup>31)</sup>

소제 조모의 흥심을 모르지 아니디 드를스록 츱악하여 기리탄식왈 너는  
도히 도적의 집을 써났거니와 우리 집 소문이 사름을 들념즉지 아니니 네  
이런 말을 불출구의하라 혹 못느니 잇거든 병드렀다가 나으미 왔노라 하라  
쥬영이 슈명하더라<sup>32)</sup>

친정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부끄러운 일이  
며, 여성된 입장에서 시대에 친정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자존심 및 본  
인 입지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친정의 문제를 정천홍이 모두 알게  
된 후, 운명아가 조모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조모를 비하하는 정천  
홍의 발언에 발끈하는 것도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sup>33)</sup> 이 때가  
지만 해도 조모와 숙모의 악행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신에게 전가되지  
는 않는다. 친모와 친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운명아에게 연루되는 일  
이 심각하게 표현되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서 부끄러움은 시대에 대한 죄책감으로 변하고, 운명아의 부끄러움이  
심화된다.<sup>34)</sup> 위씨와 유씨가 부끄러움이 없이 악행을 일삼는 것에 대해,

31) 『명주보월빙』, 7권.

32) 『명주보월빙』, 7권.

33) 윤시 부마의 말을 듯디 아니나 저를 덕하미 조모의 허물을 붓그려 처연 왈 첩의 집  
변고느 불가스문어타인이라 소고 등의 성덕으로 뼈 몸이 죄루의 써러지른 익회 츱악  
하미라 군즈 말습을 었디 한하리오마는 조손을 구덕으로 니르시른 그릇하느 말습이  
로소이다 『명주보월빙』, 24권.

34) 오디 운부인이 친정 화란을 붓그리고 슬허 빵아의 시름이 풀닐 길히 업는디라 미양  
소고 등의 전정을 근심하던 바로 문득 상부로 조츠 양냥의 전어를 드르미 명숙널과  
진소제 참참흔 죄루를 시러 후당의 슈계하여시므로 진부인이 상도하여 쥬야 침식이  
불안타하니 운부인이 본부 변괴아니 맞춘 곳이 업슬 줄 디그 하던 바의 참연통석하

그들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들의 손녀이자 조카이자 딸이라는 그리고 그것이 시댁 가문에 누를 끼친다는 점에서 죄인이 되고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윤명이는 그 부끄러움을 잊고자 죽음을 선택할까도 생각하지만, 친모인 조씨에 대한 불효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삶을 지속한다.

윤명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설정은 문제적 친정을 가진 다른 소설의 여주인공들의 양상과 유사하게 볼 수도 있다. <완월회맹연>의 장성완이나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 <창란호연록>의 한천희 등 옹서갈등담을 주축으로 소인형 아버지를 둔 문제적 친정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경우 시댁에 대하여 친정의 문제를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하며, 죽음을 결심하는 것도 여러 차례 나타난다. 게다가 이들은 친정의 문제를 빌미로 남편에게 박대를 당하는 등 부부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명주보월빙>의 윤현이는 이들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윤명이는 다르다. 우선 윤현아의 경우 소인형 아버지로 인해 친정에 대한 원죄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친정의 문제로 남편의 박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양상으로 파악할 여지가 충분하다. 윤현이는 조모와 모친의 실덕을 생각하면 경각에 쓰러져 모르길 바랄 정도로 친정의 문제를 부끄러워한다.<sup>35)</sup> 윤현이는 남편인 하원광에게 친모의 문제를 들키게 되자 ‘낮이 달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sup>36)</sup> 결국 현이는 친정의 일에서 기인한

---

여 천가지 비한과 만가지 이돌오미 교집하니 『명주보월빙』, 24권.

35) 타일 대모와 태태의 무궁헌 실덕패되 낫타나는 썩는 내 츠마 붓그러운 낫출 드러 사름을 덕하기 어려운데라 넘굽디츠의 추야 통극고져 호노라 (생략) 윤시 테읍호여 굴오디 모친의 실덕호시미 다시 니를 빅 업는디라 다만 첩이 부인의 화익을 죽어 모르고져 호느니 『명주보월빙』, 47권.

36) 소계 실노 낮치 달호여 므스 답언이 쾌히 나리오마는 계 쏘호 모친의 현우를 치 아도 못하고 나무라 호물 용납홀 짜히 업게 호를 김히 미안호여 『명주보월빙』, 49권.

부끄러움에 스스로 죄인을 자처한다. 이는 <완월회맹연>의 장성완이나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이나 <창란호연록>의 한천희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할 수 있는 양상이기는 하다. 다만 그 갈등의 발단이 ‘남자’인 아버지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어머니와 조모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구도나 사회적 현실의 반영보다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윤명아의 경우는 위와 다르게 파악된다. 우선, 윤명아에게는 소인형 아버지도, 악인형 어머니도 존재하지 않는다. 윤명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친부와 친모가 아닌 계조모 위씨와, 숙모 유씨의 문제이다. 그렇다보니 윤명아의 남편인 정천홍에게는 갈등을 할 장인이나 장모가 없고, 용서갈등으로 표현될 만한 여지도 없다. 정천홍은 첫째 부인으로서의 윤명아에 대한 굳은 신뢰를 보이며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부갈등의 여지 또한 없다. 정씨 가문의 일원들도 윤명아를 현숙하고 만고에 없는 며느리로 인정한다. 따라서 윤명아를 괴롭게 하는 상황은 오로지 친정의 문제일 뿐이다. 윤명아 스스로가 친정의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부끄러워할 뿐이다.

<명주보월빙>의 윤현아, <완월회맹연>의 장성완,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 <창란호연록>의 한천희의 경우는 친모나 친부의 문제로 인한 용서갈등이 부부갈등으로 확대된 양상 속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면, 윤명아의 경우는 친모 친부가 아닌 집안 구성원-더구나 그 집안에서 ‘타자’로 표현되는-의 잘못을 본인의 원죄의식으로 내면화 하면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문제적 친정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남편의 박대 속에서 시가살이의 괴로움을 드러내는 <완월회맹연>이나 <옥원재합기연>, <창란호연록><sup>37)</sup>과 윤현아의 경우와 달리 윤명아에게서는

37) 한길연(2005), 앞의 글, 53쪽.

시가살이의 괴로움을 발견할 수가 없다. 윤명아에게는 오히려 시댁이 피난의 장소였고, 안전한 공간이다. 위씨와 유씨가 윤명아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윤명아에게 친정은 위험한 공간이며 피해야 할 공간이다.

그런데 윤명아는 직접적으로 연루된 윤현아, 장성완, 이현영, 한천희 등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한다. 윤현아 등의 인물들은 문제적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을 품고 있는 수동적인 여성들일 뿐이다. 그에 비해 윤명아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직접 갈등을 해소한다.

문양공주로 인해 발생한 정씨 가문의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 윤명아가 신묘랑<sup>38)</sup>을 잡고 사건 해결책을 갖게 된다. 그런데 신묘랑이 국가적 죄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묘랑을 국가로 데리고 나가 모든 죄를 밝히게 하면 친정의 문제도 드러나며, 친정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확대된다. 여기서 윤명아에게 도덕적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서술자는 이런 상황을 통해 윤명아를 더욱 처절하게 만들어 버린다.

윤명아는 친정의 문제를 폭로했다는 윤리적 부담과 친정 가문에 대한 효와 충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오는 윤리적 부끄러움에 이어 시댁 가문에 친정 가문의 악행이 여실이 밝혀진다는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윤명아는 신묘랑을 잡아 국가에 고발하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때 윤명아가 선택한 죽음은 <완월회맹연>에서 장성완이 자신이 죽어 부모의 부덕을 멈추게 하는 것

---

38) 위씨와 유씨가 <명주보월빙>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들의 의견에 따라 실천하는 인물은 신묘랑이다. 신묘랑은 처음에는 위씨 유씨와 결탁하여 윤광천 윤희천의 제거 및 윤명아의 혼인을 방해하는 등 윤씨 가문의 갈등에 지대하게 개입한다. 그러던 중 금전욕이 강했던 신묘랑은 돈과 권력을 가진 문양공주의 일을 해주면서 윤명아를 제거하여 위·유씨 및 문양의 일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역으로 신묘랑이 윤명아의 편인 해원니고에게 잡히게 되어 <명주보월빙>의 가장 큰 갈등 축을 이루고 있는 위·유씨의 문제 해소가 윤명아의 손에 놓이게 된다.

이 효라고 인식하는 태도와는 다르다. 친모 조씨에게는 본인의 죽음이 불효가 됨을 알면서도 윤리적 비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윤명이는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효의 길을 선택한 것이 된다.<sup>39)</sup>

정리하자면 <명주보월빙>의 윤명이는 윤현아, 장성완, 이현영, 한천희<sup>40)</sup> 등과는 달리 심리적 거리나 혈연적 거리가 먼, 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물들의 잘못을 스스로에게 연좌하여 느끼는 부끄러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목할만하다. 즉, 윤명이는 타인-계조모나 숙모이기는 하지만 친모에 비해 심리적·혈연적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타인이라 할 수 있다. -의 부끄러운 행동을 자신의 굴레로 인식하여, 시택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부끄러워하여 그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 3.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의미

<명주보월빙>에서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여성에게서 더욱 세밀하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반면 남성 인물들에게서는 소거해버린다. 또한 악인형 인물들에서도 죄를 뉘우친 후 여성들이 부끄러움을 지속적으로 갖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에 비해 남성 인물은 관대한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

39) 덩던이문의 신원이 쾌할 바를 짓거하나 조모와 숙모의 과약이 즈기로 인하여 드러날 바를 그옥이 슬허 초하리 목숨을 쫓쳐 조모와 숙모의 죄명을 뚫디 말녀흐느니라 덩원슈의 잠혀움과 명도의 친국하라 하시물 뚫고 즉시 손가락을 찍여 피를 너여 혈소를 디을 식 『명주보월빙』 58권.

40) <명주보월빙>의 윤현아를 비롯하여 <완원회맹연>, <옥원재합기연>, <창란호연록>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부끄러움은 친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다. 물론 ‘부모’를 타인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우나 본인에게서 기인한 잘못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인의 잘못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다. 즉, <명주보월빙>에서 남성 인물들은 부끄러움으로 표현되는 윤리적 부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묘사와 ‘분노’로 표현되는 행동들의 묘사는 있지만 내면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넘어가는 인상을 준다. 이는 서술자가 남성의 잘못이나 윤리적 기준에 대해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남성의 심리에 대한 묘사를 여성 심리에 대한 묘사만큼 세밀하게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술자는 운명아를 이용하여 <명주보월빙>에 드러난 윤리적 문제를 유연하게 해소하면서 갈등 해소의 과정을 개연성 있게 풀어내려 했다. 윤광천과 윤희천은 남성이기 때문에 가문 내의 문제를 대외적으로 폭로한다고 설정하는 것이 서술자로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들이 가문 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캐릭터는 흔들린다. 위력으로도 꺾을 수 있는 위씨와 유씨의 모진 학대를 감내하고, 할머니의 거짓 증언에 따라 거짓 실성한 척하며 가문의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타개해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윤현아의 입장에서는 유씨가 친모이기 때문에 숙모와 조카 사이인 윤명아보다는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가문의 문제를 폭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친모의 죄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명아보다 윤리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윤현아의 캐릭터 역시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 <완월회맹연>의 장성완 같은 인물들이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행하지 못했던 소극적 인물로 나타나는 것과 윤현아는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윤씨 가문의 며느리 정혜주나, 사위 정천홍도 타 가문의 문제를 폭로하기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정혜주나 정천홍의 경우에는 ‘윤’씨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윤씨 가문의 일을 폭로하는 것에 따르는 윤리적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윤씨 가문의 문제

를 폭로했다면, 독자들에게서 공감을 얻는 캐릭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적으로 덜 충격을 받는 사람은 윤명아 밖에 남지 않는다. 더구나 윤씨 가문의 문제가 문양이 저지른 일들과 얽히면서 정씨 가문의 위기가 되는 순간, 시집 간 여성이 선택해야 하는 시댁 가문의 안정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윤명아 밖에는 폭백을 담당할 인물이 없었을 것이다. 윤명아가 친정의 문제를 고발함으로 인해,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그것이 비로소 해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윤명아의 감정은 부끄러움과 한, 부끄러움과 분노 등으로 점철된다. 윤명아를 부끄러움으로 점철된 캐릭터로 구성하고, 사건을 수습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독자들에게 <명주보월빙>의 서사를 설득적으로 읽히도록 한다. 독자들은 대체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적으로 개입하기 마련이다.<sup>41)</sup> 감정적 개입은 ‘동일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인공을 응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 즉, 독자들이 독서하는 과정에서 여주인공의 불행을 보고, 독자가 ‘실제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그 등장인물을 돕고 싶어 하며, 좌절에 대해 응원을 하게 되는데 그 캐릭터가 충분히 설득적이어야 가능하다.<sup>42)</sup> 그런 면에서 윤명아는 독자들과 공감장을 형성하면서 서사의 개연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캐릭터로 보인다.

<명주보월빙>은 <창란호연록>이나 <보은기우록>처럼 여향인적 의식을 보여주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sup>43)</sup> 윤광천과 희천을 때리는 위씨와

41) 제니퍼 로빈슨(2015), 앞의 책, 140~149쪽.

독자들이 이야기 속 사건을 보는 것은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등장인물에게 감정적으로 연루된다. 감정적 연루라는 것은 작품을 읽는 동안 독자의 주의를 작품 속 사건에 흡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종의 동일시라 할 수 있다. 대개는 감정이입이라고도 한다.

42) 제니퍼 로빈슨(2015), 앞의 책, 143쪽.

43) 한길연은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층을 여향인, 상층 실세층, 상층 집권층으로 나누어 그 의식성향을 세밀하게 살펴본 바 있는데 가문 전체의 번영보다는 개개인의 욕망을 부

유씨를 방해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돌팔매질을 하는 정천홍의 모습 이라든가, 위씨와 유씨가 윤광천과 희천을 박대하면서도 그들이 벌어오는 녹봉을 걱정하는 것, 가산을 탕진하여 집을 헐어 돈을 마련하고 신묘랑에게 청탁하는 등 지극히 세태적이고 통속적이며 희화화되어 있다. 또한 위씨와 유씨가 광천과 희천에게 노비들이 하는 발일을 시킨다든지 집안 청소를 시키는 것과 같은 하층체험 역시 나타난다. 가문의 정치적 부침 역시 첨예하게 드러난다기 보다 자연스러운 국면에서 나타나며 하원광 가문의 문제 같은 경우도 몰락의 과정이 지독하고 자극적이었던 것에 비해 복귀의 과정은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해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인물양상이나 사건의 양상은 국문장편소설의 관습화된 장면들을 따르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윤현이는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 및 여타의 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 세 작품에서와 달리 친부의 문제로 인한 응서갈등에서 ‘친모’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윤명아처럼 친모가 아닌 계조모와 숙모의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새롭게 창출해낸다. 또한 자극적인 설정 및 묘사 등으로 통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명주보월빙>은 여향인들의 의식성향을 보이는 지극히 세태적이고 통속적인 소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연성 확보를 위한 설정, 인물들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심리 묘사 등으로 공감장을 형성하여 흥미로 우면서도 치밀한 전개를 펼쳐나가고 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남성 인물의 심리묘사보다 여성 인물들의 심리묘사에 집중하고 있는 점, 전

---

각시켜 형상화하는 점, 일상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리와 애정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들의 모습, 하층체험 등 실제 정치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의 의식과 관련이 깊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창란호연록>을 여향인적 의식과 세태를 묘사하는 소설로 분석하고 여향의 공간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을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한길연(2005), 앞의 글, 181~199쪽.

체 서사를 지배하고 있는 심각하고도 통렬하게 느껴지는 감정으로의 부끄러움과 그 주체인 윤명아를 설정하면서, 서사적으로는 물론 여성등장인 물에게 쏟아질 윤리적 비난을 고려했다는 점은 서술자의 의식이 여성에 매우 근접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감정에 주목하여 <명주보월빙>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특히 <명주보월빙>의 서사를 견인하는 주요인물인 윤명아의 지배적인 감정인 부끄러움을 중심으로, 윤명아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군들에게서 발생하는 부끄러움의 양상까지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악인형 인물들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갈등이 봉합된 후 개과천선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면서 부끄러워한다. 위·유씨 문양공주, 구몽숙과 같은 인물에게서 주로 나타나는데 남녀 인물의 부끄러움의 지속이 확연히 다르다. 여성 인물의 부끄러움이 끝까지 지속된다면, 남성 인물의 부끄러움은 일시적이다.

윤명아에게서 나타나는 부끄러움은 악인형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끄러움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윤명아는 친정의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시대를 대한다. 윤현아가 보이는 부끄러움은 <완월회맹연>의 장성완이나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 <창란호연록>의 한천희에게서도 보이지만 윤명아와 결이 다르다. 윤명아는 친부나 친모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씨와 유씨의 악행을 본인의 부끄러움으로 여겨 시책으로부터 죄인을 자처하고 죽음을 선택한다. 그에 비해 윤광천이나 윤희천의 부끄러움은 매우 소략해서 <명주보월빙>에서 부끄러움은 여성들

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명주보월빙>의 서술자는 남성 인물들의 부끄러움을 관대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소거, 생략해버리고 여성 인물들의 부끄러움을 정밀하게 드러낸다. 또한 운명이라는 인물을 설정하여 친정 가문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갈등의 해소를 담당하게 하여 서사적 개연성을 확보한다. 운명이라는 친정의 과오를 폭로하면서 시댁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시댁에서의 자존심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친정의 과오를 폭로한 일종의 내부고발자가 되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서사에서 이러한 고발을 담당하고도 윤리적으로 비난을 덜 받을 인물은 운명아 밖에는 없다. 친모나 친부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정의 문제로 원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완월회맹연>의 장성완 같은 인물들과 달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성 인물로 표현된다는 점이 운명아의 차별점이라 하겠다.

<명주보월빙>을 여항의 의식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된다. 금전적인 문제, 개인적 욕망의 부각, 하층체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설정의 반복 등 지극히 세태적이고 통속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등장인물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윤리적 비난을 피해서 서사적 개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 여성 인물을 창출하려는 서술자의 의식이 보인다. 아마도 서술자는 여항인이면서 국문장편소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한 여성 인물들에 대한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여성 서술자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부끄러움에 주목하여 그 밖의 감정들이 작품에서 갖는 기능에 대해서 폭넓게 살펴보지 못했으나 추후 다른 감정들의 작동기제나 묘사양상을 통해 서술자의 의식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명주보월빙』, 고려서림,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 영인본.

- 김경희, 「고전소설을 활용한 온라인게임의 서사화 방안-〈명주보월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58쪽.
- 김동욱, 「한글장편소설의 ‘우부형(愚婦型) 인물’ 통해 살펴본 정의의 문제」, 2018 전국고전문학자대회 발표자료집, 2018, 300~314쪽.
- 박경숙,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인물형상화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70쪽.
- 윤현이, 「장리지식을 활용한 장편가문소설의 읽기 전략 연구-〈창선감의록〉, 〈소현성록〉, 〈명주보월빙〉 읽기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60쪽.
- 이명호 외, 『감정의 지도그리기』, 소명출판, 2015, 1~446쪽.
- 이상태, 「〈명주보월빙〉연구-그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131쪽.
- \_\_\_\_\_, 「〈명주보월빙〉의 작품세계」,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81, 201~212쪽.
-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 반동인물 연구」,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93~126쪽.
- \_\_\_\_\_,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202쪽.
- \_\_\_\_\_,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309~342쪽.
- \_\_\_\_\_, 「대하소설의 여성과 범-중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27~178쪽.
- 전상욱, 「항목동 세책의 대출장부에 대한 고찰」,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535~563쪽.
-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221쪽.
- 제니퍼 로빈슨, 조선우 역, 『감정, 이성보다 깊은-감정 그리고 문학·음악·예술에

서의 감정의 역할』, 북코리아, 2015, 1~532쪽.

조태성, 「부끄러움[恥]의 역설, 감성의 동역학」, 『시조학논총』 44, 한국시조학회, 2016, 255~279쪽.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173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76쪽.

ABSTRACT

The Aspects and Meanings of Shame in *Myeonjubowolbing*

Kim, Eun-il

This study examines the narrator's feeling of shame in the classical Korean novel known as *Myeonjubowolbing*. The shame felt by female characters of a bad is expressed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 the shame felt by male characters of a bad is expressed by temporary in *Myeonjubowolbing*. Meanwhile, Yoon Myung-a is different from other female characters such as Jang Seong-wan of *Wanwolhoemaengyeon*, who suffered the shame of her family affairs. Yoon Myeong-a solves the conflict directly. The narrator has developed a precise strategy to ensure that readers do not feel an ethical gap. However, it does not delicately handle the shame of male characters compared to expressing the shame of female characters. Therefore, the narrator of *Myeonjubowolbing* has a rich knowledge of the Korean long novels of the time, but its consciousness is feminine.

**Key Words** *Myeonjubowolbing*, Shame, Feelings, Korean long novel,  
*Wanwolhoemaengyeon*

논문투고일 : 2018.09.30  
심사완료일 : 2018.11.10  
게재확정일 : 2018.11.19